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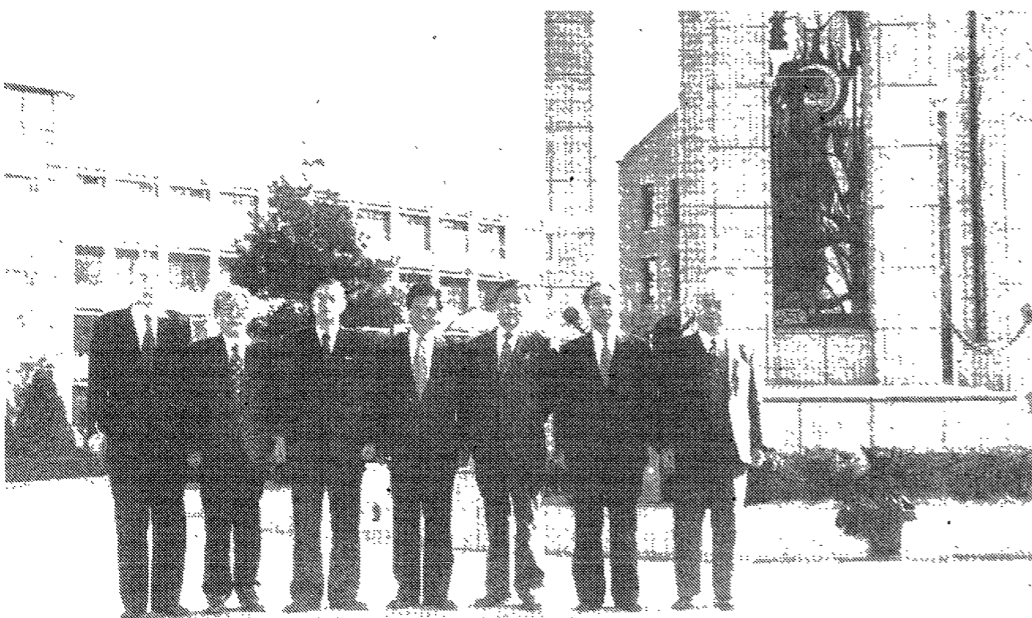
금추일언 이미 이겨서 악을 받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겼으니 밝은 지혜 열정이 끝없어, 동맹함을 열어 도에 틀게 되었다.
(백구경·솔플롭 278절)

東大新聞

발행	주간	민	병
주	간	심	익
부	간	이	선
편집	간	이	만
면	장	익	조
		서	종

서울 :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 중구 필동3가 26 (02-760-3492)
 FAX(02)7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053-770-2067)

총장후보 7명등록, 15일 투표



◊본사가 주최한 총장선거 입후보자 좌담회가 끝난 직후 후보자들이 공청선거를 결의하며 자리를 함께했다. 좌로부터 민태진·오형근·김인제·조희영·홍치유·송석구·박준학후보(기호순)

본교 제13대 총장후보추천선거에 총 7명의 교수가 등록함으로써 오는 15일 투표를 앞두고 박바지 선거전에 돌입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선편위)는 지난 5일 5시까지 최종등록을 마감한 후 입후보자에 대한 개별자격심사를 거쳐 다음날(6일) 확정공고했다. 이번에 등록된 입후보자 명단은 △기호1번=민태진(화학) △기호2번=오형근(물리학) △기호3번=김인제(경제학) △기호4번=조희영(경영학) △기호5번=홍치유(물리학) △기호6번=송석구(철학) △기호7번=박준학(행정학)으로 총 7명의 교수이다.

입후보자 기호는 최종등록마감 직후 후보자 상견례를 통해 추정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날 상견례에서 선편위는 "여러분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특정후보의 홍보활동을 금함"을 밝히며 후보자들의 공청선거를 당부했다. 이번 선거운동방식은 선거공명제와 실시로 인해 선관위가 제작한 입후보자들의 신상과 정적, 학교발전계획 등이 기재된 '공명공보물'을 1회에 한해 배포했으며 개별적인 유인물이나 벽보, 서신 등은 발송할 수 없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 7·8일 양일간 두차례에 걸쳐 서울·경주캠퍼스 합동유세에 있었으며 총장선거를 위한 교수회 임시총회가 오는 15일 1시 도서관4층 열람실에서 진행된다. 그에앞서 선관위는 14일 선거를 위한 예비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선거당일인 15일에는 각 후보자들의 건략한 인사 소개가 끝난 직후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가 끝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포하고 교수회는 당선된 총장후보자 2명을 재단법인 이사회에 오는 16일 임명하게 된다.

1차유세

지난 7일 동국관(301)에서 열린 후보자 1차 유세에는 약 3백여명의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하여 후보자들의 유세를 경청하고 활발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7명의 후보자들의 합동유세이후 공청회시간에는 교수회에서 공동질문을 각 후보자에게 제시했다. 그 질의내용을 보면 ①서울캠퍼스의 과밀화 해소 방안 ②학교행정을 효율화할 조직개편방안 ③신규교원임용, 교과과정운영, 연구수용 등 학교의 자율성을 높일 의향과 방안 ④보직인사원칙 ⑤불교종립대학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학교발전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 ⑥교수회를 학칙기구화 할 의향 ⑦연도별 정책공약이 시행되지 않으면 즉각 총장직에서 물러날 작오가 되어 있는지 여부 등 총 7항목이다.

이에대한 답변으로는 △기호7번 박준학=①15년째 개교50주년을 맞아 대학의 재건과 발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1세기 전방에 걸맞는 불교종립대학의 특성을 살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②학교행정을 효율화할 조직개편방안 ③신규교원임용, 교과과정운영, 연구수용 등 학교의 자율성을 높일 의향과 방안 ④보직인사원칙 ⑤불교종립대학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학교발전과 연결할 수 있는 방안 ⑥교수회를 학칙기구화 할 의향 ⑦연도별 정책공약이 시행되지 않으면 즉각 총장직에서 물러날 작오가 되어 있는지 여부 등 총 7항목이다.

기호6번 송석구=①현황진실과 보직실의 교수연구실화 ②책임제 ③공공적이고 민주적인 방법 ④능력·참신성·추진력 ⑤국제불교학술회의 개최 ⑥보완협력필요 ⑦각오되어 있다. △기호5번 홍치유=①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②단대행정체제로 전환 ③동국의 화합발전에 기여한 자 ④동양학센터개설 ⑤교수회장이 의장직을 겸임할 수 있도록 ⑥의의가 있다 △기호4번 조희영=①과학적 분석 후 혁신적 공간배치안 제시하겠다 ②기업의 효율화 개념 도입 ③특수 연구소지원방식사용 ④능력있는 자 ⑤장제력개발 국제화시커야 ⑥당연하다고 본다 ⑦물러나겠다 △기호3번 김인제=①기획위원회 만들어서 공간배치 실시안 ②교과부총장 사학부총장제안 ③학과장 중심제 ④경쟁역량과 학문적 업적에 따라 ⑤세계불교연구소 활성화 ⑥총지를 모아 풀겠다 ⑦내 자신이 판단하여 물러나겠다 등이 제시되었다.

이후 진행된 학생질의시간에는 제27대 총학생회장 안진우(국4)과 사과대 학생회장 정심근(사3)은 대표로 공통질문과 각 후보에 대한 개별질의를 했다. 공통질문으로는 ①자치공간확보문제 ②교수채용시 학생참여여부 ③학과통폐합 등 3항목이다. 이에대한 답변은 △기호4번 조희영="주어진 공간활용을 과학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듯 한다는 개별질문에 관해서는 "재정확보방안에 중점을 두었고 불교공공을 운영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기호3번 김인제="학생도 양보해서 공간배치에 참여해야 한다"며 "총장이 되지 못해도 당선시 기준을 약속했던 사람이 협력한다면 제3캠퍼스 구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호2번 오형근="충분한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며 악역제로 알려진 호산건설회사에 관해서 "절제한 수질검사를 한다"며 사업성이 있으며 호산회사는 하나의 예이다"라고 얘기했다. △기호5번 홍치유="교수채용에 학생이 문의한다면 1백퍼센트 수용하겠다"고 약속하며 "재단과의 관계에서 임무수행이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며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기호1번 민태진="교수채용시 인맥·지배권이 배제되지 않았다"며 "과감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국립극장 불하 추진에 관해서는 "빨린 이전부터 생각해온 것으로 동문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호6번 송석구="학생들이 조금만 참여

하면 학술포럼 건립으로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히고 불원사토지매각이 불투명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단과 학교가 하나가 된다면 이뤄지리라고 보며 지분요청을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기호7번 박준학="학과통폐합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교수채용에 학생참여는 정서상의 문제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각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안진우군은 "질문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듯 하고 대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날 1차유세 및 공청회에 대해 김진철(정치외교학)선관위장은 "각 후보들이 시간상 먼저 자리를 뜬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체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잘 진행되었다고 보며 모범적인 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직원노조는 비상총회를 열어 총장후보자를 단독선출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3일 서울·경주에서 전체직원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직원비대위, 7명입후보자 추천

선관위 공보물제작·배포, 13일 투표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한 서울·경주 직원비대위(이하 비대위)는 제13대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직원 투표의 입후보자로 교수회 선관위에서 등록한 7명의 입후보자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직원 투표를 통해 오는 13일 총장 후보자를 단독선출하기로 결정한 직원노조는 비대위가 입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하고 지난 4일 총장후보자선출 직원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직원선관위)가 전체직원투표를 공고했다.

입후보추천에 대해 김윤길 서울캠퍼스 노조위원장은 "추천 입후보자 선정의 원칙을 설정하여 엄밀한 기준을 거쳐야 했다"며 "여러건의 상 교수회 선관위에 등록된 7명의 입후보자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수회측이 교수회에 제출한 공보물을 그대로 홍보해주시는 요구가 있어서 추천후보자를 결정하

는데 논란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선거를 관리할 직원선관위는 지난 12일 30일 서울, 경주 각각 처과장회와 노조에서 추천하는 11인으로 구성했으며 지난 9일부터 추천 입후보자의 공보물을 배포했다. 추천 입후보자의 기호는 따로 부여하지 않고 한글자모순으로 순서를 정하고 오는 13일(금)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서울은 중앙당에서, 경주는 원효관(A205강의실)에서 각각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선거권은 본교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용되어 1년이상 근속한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전체 직원이며 선거인명부열람은 오는 12일까지 노조사무실(선거관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 개표는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경주 합동으로 회계관(205)에서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일때 유효하고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 결과 후보자로 확정하게 된다. 한편, 직원선거 개표결과와 공식적인 발표는 직원선관위에서 교수회 선거 개표 시각과 비슷하게 발표할 예정이고 발표 직후 선관위는 해산한다. 또한 비대위는 법인 이사회에 총장후보자를 추천 건의하는 시기를 정하고 추천 건의한 직후에 해산하게 된다.

이번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대해 김윤길 서울캠퍼스 노조위원장은 다음 총장선거제도에 타산지석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 교수회 회의를 통해 다음 총장후보자가 결정된다면 공약사항을 학교발전 관련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 공약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의 투표일때 유효하고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 결과 후보자로 확정하게 된다.

한편, 직원선거 개표결과와 공식적인 발표는 직원선관위에서 교수회 선거 개표 시각과 비슷하게 발표할 예정이고 발표 직후 선관위는 해산한다. 또한 비대위는 법인 이사회에 총장후보자를 추천 건의하는 시기를 정하고 추천 건의한 직후에 해산하게 된다.

이번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대해 김윤길 서울캠퍼스 노조위원장은 다음 총장선거제도에 타산지석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 교수회 회의를 통해 다음 총장후보자가 결정된다면 공약사항을 학교발전 관련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 공약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선거권자 과반수 이

사설

민주적 총장선거의 의미

올해년 벽두부터 동국인들은 대학의 최고책임자인 총장을 선출하는 정치행사를 치루느라 분주하다. 95년 그리고 앞으로 4년(아마도 동국90년 역사의 매듭을 지으면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이번 총장선거는 동국인 모두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총장선출방식에 관한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건 완벽함을 고집할 수는 없으며, 특히 선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절차적 정의"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말은 제도자체 보다도 어느 순간부터는 진실되지 못하거나 선출된 과정이 부당한 당선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직선제비판의 논거로 혼탁선거가 우려되었으나 선거중단이 지난 지금까지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가 노력하여 정정당당한 선거과정을 이끌어 왔음은 높이 평가된다. 남은 기간 역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자나 선의의 경쟁과 민주적 대학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노력해 줄것을 기대한다.

선거중단까지를 지켜볼때 가장 큰 이슈는 역시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이었다. 이번에 출마한 총장후보들 모두가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리고 후보자 모두가 공약이행을 위한 나름대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성정치판에서나 볼수있는 허구적인 정책나열이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과대포장된 공약이나 말로 역사를 매듭짓고 저발전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후보들은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진솔하게 대학발전의지를 피력하는것이 중요하며, 유권자들은 표의적인 기대상승으로 자위할 것이 아니라 제시된 공약내용에 대한 면밀한 비교검토를 가해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당선된 뒤 보자는 식의 무책임이 대학사회에 존재하는 안일함이, 따라서 선거공약은 사후에 엄정하게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차원이 아니라 무한경쟁속에서 동국발전의 이룩하려면 대학을 이끌어갈 총장을 제대로 선출해야 한다는 명분과도 직결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발전의 찬스가 있었지만 변화의 시기마다 기회를 놓쳐 상대적인 담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실현이 따르지 않는 말만인 성찬 때문이었으며, 새로운 총장의 선택과정에서 이부분이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민주총장을 정당하게 증명시킬 수 있는 나날의 여부는 동국인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아호로 동국의 원기 역사가 매듭지어지고 새로운 발전의 도약기를 맞고있는 지금, 동국중흥의 첫단추인 이번 총장선거가 대학전구성원들의 성원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한편 축제의 민주적 선거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경주 총학생회 후보자에게 서면질의서 전달

제27대 총학생회(회장=안진우·국4)는 단과대 운영위에서 제시한 질의내용을 수렴하여 지난7일 총장선거 입후보자 공청회자리에서 각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안진우총학생회장은 "공청회는 총장선거에 있어 후보자에게 내용적인 부분을 강제하기위한 참여였다"며 "이를 중심으로 차기총장을 견인해내기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결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용배(국4)학자투장은 선거가 진행되는 오는 15일에 "교수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는 투쟁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단과대의 요구를 수렴한 서면질의서는 오는(12일) 각 후보자에게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배문석·철3)는 지난 8일 2차 경주유세에 참가하여 각 후보자들에게 개별질의시간을 가졌다.

각 후보자 질의내용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기호1번 문·교과사무 부총장제 신설계획이 있다면 경주경우 부처의 신중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답:능률적 운영을 위해 책임을 나누어 부여하는 취지에서 계획하였으며 학과장 중심에서 간소화 한다는 의도이므로 많은 부서 신설은 아님. 기호2번 문:일본·중국 사립대 분교설치가 양립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답: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것으로 앞으로는 국제화의 유대관계에 있어는 국제화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 기호3번 문:양방 병원 서울건립을 위한 재원마련 방도와 법적책약 극복 계획은, 답:자료를 수집중이며 서울에 병원을 유치하면 수익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 기호4번 문:의료원체제 혁신방안과 의료원 운영내역 공개하는 문제

에 대해, 답:의료행정혁신 계획은 공개행정으로 가는 과정으로 현 행정체제를 개혁. 기호5번 문:간호대, 공대, 정보전산대, 대학원 신설시 경주캠퍼스 시설과 포화 상태에서의 수용방법은, 답:정보전산대는 편제개편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간호대, 공대는 교수회관 건립시 수용가능. 기호6번 문:회사운영 자정성 확보에 대한 단계별 연도별 계획은, 답:자치권 확보문제 위임은 경주의 부총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 단계별 계획 구체사항은 총장이 되면 공개. 기호7번 문:독립에상해 실현시 경주캠퍼스 예산권 변화와 국고지출, 재단전입금 분배문제는, 답:경주에서 얻은 수입은 경주에서 서울수입은 서울에서 지출. 한편 경주캠퍼스 제12대총학생회(회장=배문석·철3)는 지난 11일 총장선거에 대한 5차모임을 갖고 8항목의 서면질의서를 각 후보자에게 전달할 것을 결의했다. 서면질의서의 내용은 △총장선거 후 회칙개정등 하나 제정체와의 합의를 가져올 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경주캠퍼스 부총장의 인사권·재정권확대의 연도별 단계별 계획 △제3캠퍼스운영시 체재나 운영의 전담 △중흥의 21세기 전방에 걸맞는 불교종립대학의 특성을 살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과과포화상태의 공간문제를 해소할 단계적계획 △대확립기인정제에 대비한 경주캠퍼스의 대책 △과속진척의 경주캠퍼스 인접 통과가시화되어 한방병원과 자연과학관,동대병원에서 지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 △과과포화상태의 문제에서 학생 참여보장문제등 총 7항목으로 이에 대한 답변은 오는 14일까지 요구할 것으로 전한다.

지난 90년에 이은 두번째 직선제가 오는 15일 실시된다. 총 7명의 입후보자가 등록 했고 서울·경주캠퍼에서의 유세도 치뤄졌다. 이에 본사에서는 동국발전의 소신을 묻고자 입후보자들에게 공동질문을 제시했다. (편집자)

특별 인터뷰

총장 입후보자에게 듣는다

공/통/질/문

- 1. 출마동기
2. 총장의 위상은
3. 현재 동대발전의 걸림돌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은
4. 이번 총장선거에서 우려되는 점
5. 직원, 학생 참여에 대한 생각
6. 재단과의 관계모색

학교발전기금 유치기반 조성



◆김인제 후보

56년 동국인이 된 이래 동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생각해왔던 것들을 실현시켜 동국의 위상을 높이고, 자랑스런 민족사학으로서의 위치를 하루 속히 회복하여 세계 속의 대학으로 융복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출마하였다. 대학 총장은 그 나라의 양심이요 그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라야 한다. 따라서 학자로서 학문적인 업적은 물론 탁월한 행정력, 학교와 재단 사이의 융화력, 동문들을 학교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할 수 있는 친화력, 교수, 학생, 교직원인 혼연 일체가 되어 훌륭한 학교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총장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어야 한다. 본교의 재단,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 모든 구성원이 충분한 역할을 갖고 있으나 이를 한곳에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는 점이 다. 21세기를 대비한 동국의 위상 확립을 위한 단기계획으로 학문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동국대학교 산·학·연 종합연구원 설치, 교수 연구 활동 세계화, 교육의 기본시설 확충, 행정개편, 교원 처우개선 및 학생 해외 파견의 활성화 등을 임기 내에 실시한다. 장기계획으로는 교육 공간 문제해결을 위하여 국립극장의 불하를 적극 추진하고, 학교발전기금1억5천백만원 유치기반 조성, 통일을 대비한 제3캠퍼스 부지 확보, 뉴욕과 LA에 동국대학교 분교 설치운영 기반의 조성, 의과대학 서울병원 건립 기반조성 등을 추진한다.

대학총장은 그 나라의 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거보다도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부터 선거운동을 과열시킨 후보가 있다는 설이 있어 몹시 염려스럽다. 직원이나 학생의 선거참여에 대하여는 학교 발전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외국의 명문대학이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총장을 선출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수, 직원, 학생, 동문 할 것 없이 어느 학교든지 학교 설립자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김인제 후보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대학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하고 존립의 위기와 발전의 기회가 양립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재정의 확보문제로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총장에 출마하고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확보에 전력을 할것이다. 재정확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50만평 이상되는 제3캠퍼스 부지를 구입하고자한다. 여기에 교양학관 기숙사 지도교수 아파트를 건립하고 신입생에게 불교전학이념 인성교육은 물론 21세기 대비한 세계화 국제화에 적용할수 있는 이

제3캠퍼스 부지구입 추진

나라 동향을 교육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센터 건립, 연구활동을 통해 대학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세계적 연구센터를 건립하고자한다. 셋째, 한방 병원과 양방병원은 서울중심부에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넷째, 마음이 청정하여야 한다. 둘째, 재정적 확보가 가능한 인물이어야 한다. 셋째, 국제적 안목이 있어야 한다. 넷째, 공격적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미래를 내다볼수 있는 현안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정책을 선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첫째, 동국발전의 잠재력은 큰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지도자의

불교병원 건설로 불교인 참여유도



◆송석구 후보

본교 건학이념의 현대적 조명으로 높은기상(깨달음의 길), 더불어 사는 사람(자리아타)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동국대학교에 현재의 발전적 모색으로서 교육개혁과 그를 뒷받침하는 교직원 확대 및 의대·한의대 부속병원(불교 종합병원)을 건립하여 1백주년을 앞둔 동국대학교의 위상을 역사와 전통에 걸맞은 명문대학으로 증용하기 위함이다. 본인은 부총장으로서의 경험과 불교계 인연을 통하여 대학을 증용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총장은 첫째 비전, 둘째 추진력, 셋째 건강, 넷째 결단력, 다섯째 인화단결력, 여섯째 대외 교섭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고 동국대학교에서 필요한 오늘날의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일하는 심부름꾼, 봉사하

는 회생자, 최후로 책임지는 결단자이어야 하고 대외교섭력으로서 불교적 자산을 가진자이어야 한다고 본다. 본인과 자학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자신과 긍지를 갖지 못한다 있고 불교계의 인적 물적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대등단결이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첫째, 우리 건학이념인 불교를 통하여 동국대학 발전이 곧 불교발전이라는 일체감을 가지고 동국대학의 자체의 힘을 기를때 종단·재단 및 1천만 불교인들이 동국대학교를 지원하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이를 위하여 현재 협소한 캠퍼스를 일부대학을 중심으로하는 제3캠퍼스를 건립하고 동시에 모든 불교인의 숙원인 불교 종합병원을 건립할때 불교인들이 동참해서 동국대학을 지원할 것으로 생각한다. 4)직장인의 전담인 대학의 교수

에 의한 선거는 정치사회의 일반선거와 달리 가장 모범적이며 깨끗한 선거가 되리라고 믿는다. 다만 일부의 마타도 또는 인신공격이 우려되지만 현재까지 그런 우려가 없이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총장은 첫째 비전, 둘째 추진력, 셋째 건강, 넷째 결단력, 다섯째 인화단결력, 여섯째 대외 교섭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고 동국대학교에서 필요한 오늘날의 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일하는 심부름꾼, 봉사하

중단, 교육투자 열의 있어야



◆오형근 후보

불교를 건학이념으로한 동국대는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조계종등 불교계에서 많이 도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중단도 이타적인 보살사상에 입각하여 인재를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단과 협의하여 모금을 하게되면 동대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출마 하게 되었다. 총장은 첫째로 학력이 있어야 하고 교수나 학생들에게 비판을 받지않은 인격자이어야 한다. 총장의 학문이 훌륭함으로써 학생과 교수들이 순응하게된다. 그리고 앞으로 교수평가도 자신있게 할수 있고 학생도 자신있게 지도할수 있는 것이다. 총장은 동국인들에게 미소가 있는 얼굴을 보여야 하며, 자비로우면서 당당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고위직을

맞출때 담당하게 동국인의 체면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동국대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훌륭한 교수를 영입하며, 훌륭한 학생을 선발하여 학풍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투자의 열의가 있어야 한다. 이제 중단도 교육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식개혁이 있어야 한다. 총장선거운동과정에서 타락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혼탁성이 있었다. 그리고 선관위의 공모일선에는 선거를 하였다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우려되었고 사전선거는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되었다.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은 대학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3파의 내용을 보면 교수가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학내에서는 교수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또 지성과 인격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만으로 투표행사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 교수회라는 간판이 있는 한 그 교수회에서는 교수의 권한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들러 교수만으로 투표하게 된 것 같다. 본인은 불교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불교와는 남달리 인연을 맺어 왔다. 총장은 교직원들을 대표하여 이사장을 예방하고 학교의 재반사를 논의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총장이던 재단과 각별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본다.



◆조희영 후보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모교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총장으로의 사명을 다하기로 하고 총장 출마에 나서게 되었다. 동국대학교는 불교를 건학이념으로하는 불교종합대학이다. 따라서 불교의 중흥과 동국대학교 총장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교개혁을 통하여 1차적으로는 불교의 중흥이 가져야 하고 동국대 총장은 동국대 발전과 불교중흥을 이어가는데 있어

불교 전학이념 구현에 총력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즉 동국대학교 총장은 불교종합학교의 대표로서 대학교육의 본질을 충실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나아가 불교 전학이념을 구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국대학교는 89년의 연륜이 보여 주듯이 역사와 전통이 있어 상당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인의식이 결여되고 있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불교의 역사성 인식을 통하여 재도약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고 본다. 선거과정에서 학원 및 지원주위의 집단이거주의 표출로 인하여

상대후보간의 반목이 증폭될수 있음을 우려한다. 앞으로보다 발전적인 총장 후보 선출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교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는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행 교수회의 제도하에서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동국대학교는 불교종합학교로서 설립주체인 조계종의 동국학교법인과 유기적인 협조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바탕없이 총장으로서 학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천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재단과의 원만한 관계는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홍치유 후보

물리학과에 1968년 입학한 이래 지금까지 같은 학과에서 몸담아 오면서 모교에 언제나 보은하고자 생각해 왔다. 또한 격려했던 시대의 스승들이 속에서 본교의 위상이 어떻게 자리해 가는가를 울분과 내疚를 키워 주고, 나의 오늘이 있게 해준 모교의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은 위상정립에 살신성인정신으로 봉사하여 그 견인차가 되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1백년 전통을 바라보는 우리 대학의 오늘은 전 세계로 열려 가

대학운영 공개평가 제도화

는 학문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때를 같이하여 동국의 총장상도 학덕과 인품을 겸비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경영총장 이어야겠다. 현재 동국발전의 걸림돌이라면, 사내사육, 권위주의에서 비롯하는 비양심 세력의 준동에서 찾고자 한다. 동국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양심들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의 동반자가 되겠다. 정기적인 대학 운영 공개 평가를 제도화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학교 운영에 반영할 것을 확신한다. 21세기를 녹색에 둔 지금 모든 것은 새로운 세계를 예비하는 토대 구축에 모아져야 한다. 이번 총장선거 역시 자유롭고 깨끗한 선거임을 확신한다. 당연히 경쟁력있는 세계의 동

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총장이하고 교수들은 물론이고, 학생, 교직원 및 재단 모두 함께 참여하는 동국의 개혁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도 하여금 건학이념으로서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위하여, 타 종교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불교단체 및 사찰의 장학기금을 적극 확충하여 재학생에게 혜택을 주며, 교과과정 중에 불교정신을 인성교육의 기본으로 하면 불교계의 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우리 불교계와 대학의 숙원사업인 수도권에 불교종합병원의 건립을 위하여 중단, 재단 및 대학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양-한방이 가능한 6백병상 이상의 병원을 마련하겠다.

교수·학생 능력계발에 이바지



◆박준학 후보

동국대학교를 위하여 그 부조리와 불합리한 운영방법을 개혁하고 실추된 위상을 바로잡아 불교사학으로서의 빛을 내도록 봉사하겠다는 뜻에서 출마했다. 첫째, 우리대학을 개혁하여 정지작업을 한 다음에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방안을 실천할 것이다. 둘째, 동국의 건학이념인 불교정도의 선양에 헌신하겠다. 총장은 학교발전의 선두에서 봉사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교수의 무한한 능력계발 및 성취에 이바지하는 자리에 서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총장의 사업추진 능력, 정책의 합리성에 관한 정책평가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판단에 머물러야만 한다고 본다. 총장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열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수의 관리지향성, 행정의 경직성,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하려하지 않는 무기력은 열망이 약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간절한 소원을 이루려는 꿈을 가져야 한다.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과열된 나머지 교수사이에 불신의 벽이 생기고 '우군'과 '적군'으로 착각하여 대학운영에 역효과를 낼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기능도 직선선거의 장점에 비하면 문제상을 만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입후보자들간의 절제만 있다면 우려할 것이 없다고 본다. 직원과 학생의 의사표시는 그 절차와 기본 입장이 순수하다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가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한 투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경계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이익의 달성을 보장하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민주주의 이름에 이끌린 정치투쟁은 혼란만 가져온다. 재단은 대학운영의 주체이므로 총장은 재단의 건학이념을 받들어 행정을 해야만 한다. 다만 대학의 운영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관리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단은 총장의 사업추진 능력, 정책의 합리성에 관한 정책평가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판단에 머물러야만 한다고 본다. 총장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사주최 총장선거입후보자 좌담회

“총장선거, 역사적 전환기 맞아 동국발전의 최대관전”

직선제실행 의의 공유·공명정대한 선거운동다져

- 기호1번 민태진(화학)후보 기호3번 김인제(경제학)후보 기호6번 송석구(철학)후보
- 기호2번 오형근(불교학)후보 기호4번 조희영(경영학)후보 기호7번 박준학(행정학)후보
- 기호5번 홍치유(물리학)후보

본사에서는 오는 15일 제13대 총장후보 추천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 좌담회를 개최하여 각 후보자의 정책 공약들을 들어보았다. 후보자가 한 자리에 모여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동국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편지자

사회자: 심익섭(행정학)본사주관
일시: 1995년 1월 11일 오후 2시
장소: 교무위원회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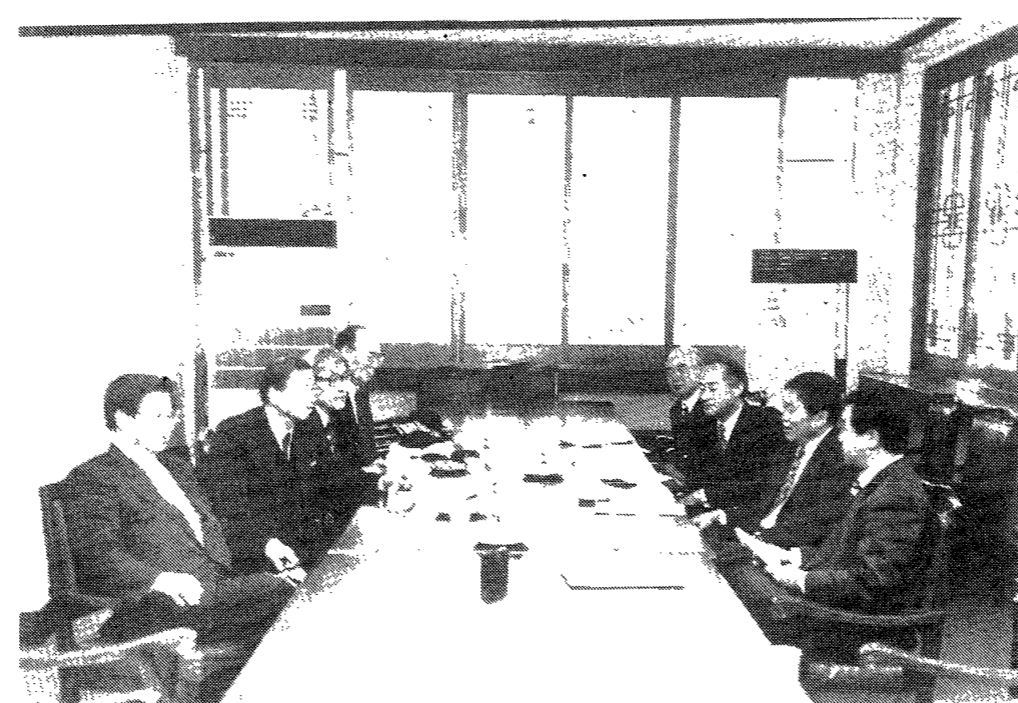
사회자: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눈코 뜰새없이 바쁜 중에 이 자리에서 참석해 주신 총장 후보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 말씀 드립니다. 법정선거운동기간이 10일인데 이제 그 절반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정당당파하게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에 전력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일곱분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쉽던 차에 동대신문사 주최로 이번에 좌담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선거후보들이나 합동유세에서 미처 제시하지 못한 정책이나 수정·보완 할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논쟁보다는 유권자들이 좀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데 본 좌담회의 목적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들은 물론 모든 동국구성원들의 총장직선제에 대한 관심이 고

님들이 선거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후보공약에 대해 상당히 면밀히 분석해서 현실적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에 열의를 보이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선거가 훌륭히 잘치러지면 동국의 이해집단과 관련된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총장에 당선된 사람에게 많은 후원을 해주고 더 나아가 동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현재 선거의 큰 의의라고 봅니다.

조희영후보: 우선 선거가 이런 형태로 치러진데 대해 후보로 나선 입장에서 아주 다행스런 감을 절감합니다. 주변 여러대학들의 예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직선에 의한 총장후보선출 방법이 제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비판의 내용으로 여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선제실행의 기본발상은 역시 대학의 기능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자율화를 보장하기 위한 한 방편입니다. 대학의 대표를 구성주체에 의해서 직접선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그 자체가 대학의 자율화를 지켜나가는 데 커다란 변혁의 계기가 되어왔다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재단이 현행 별태투리를 지켜가려고 하는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늘의 역사성에 비추어서 동국대의 구성원들이 열연하는 정서에 의해서 이뤄진 이번 선거는 재단입장과 구성주체간의 입장을 잘 조화시키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직선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약간 이탈하는 측면이 없던 아니지만 구성주체들의 정서를 방식 그대로 반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민주적



좌담회에 참석한 7명의 입후보자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동국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결의했다.

보다 훌륭히 하고 연배가 높으신 60대 이상 교수님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강하게 총장을 하겠다고 4, 5백교수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했다는 것에 대해 1차적으로 선배·동료 교수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송석구후보: 선거에 출마하신 동료 선배교수들이 모두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이었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까지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상호비방이라든가 인신공격성 마타도 등이 나오지 않고 선거과정에서 화교발전에 이익을 담당했다고 하는 얘기를 피력하고 그것이 또 합리적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공약을 통해서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 후보한사람으로서 함께 감사히 여기니다.

이번 직선제에 대해 우리대학의 좋은 풍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직선제에서 선출된 두사람중 재단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하간 두 사람이 올라갔을때 다같이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라고 이 선거를 이루어내게 했던 교수회 임원들의 노력과 교수들의 열의,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어느정도 얻어왔다는데 대학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두번째 민주적 선거의 의의라고 본다면 역시 공개적으로 우리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으로 해야만 모든 구성원의 힘이 합일해서 동국대학의 발전에 대한 원동력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제후보: 이번 총장선거는 21C를 여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개혁의 단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21C에 중추적이거나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 지성의 전당이라는 기로에 와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총의가 결합되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기회가 온다고하는 데서 저는 이선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동국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리더가 나와야만이 잠재적인 힘을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무한한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시화시키고 현대화시키지 못했고 인화단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상대적인

낙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번 기회에 모든 구성원들이 단합해서 새로운 동국대학교를 열어가는 한 계기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준학후보: 첫째 의사결정의 자유가 정치, 경제의 범위를 넘어서 대학에서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사회의 진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의사결정의 과정이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성과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라 하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대학에 있어서도 교수인들이

경쟁은 앞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우수한 교수를 계속 영입하여야 합니다.

총장이 되려면 최소한 1년에 1백억 이상의 모금을 해야지 학교발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오형근후보: 첫째로 교수들이 훌륭한 논문을 써서 발표하고 둘째로 재정의 혁신은 행정상의 불규칙적인 배정을 해서는 안되고 예산의 배분으로 내세웠는데 누구보다 중단과는 인연을 깊이 맺었기 때문에 불교적인 모순문제라든가 자금출처 문제를 총장에게 맡겨 이용한다면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치유후보: 제가 총장이 된다면 역시 첫번은 물론이고 교수, 직원, 학생들 또한 좋은 발전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연구실에는 불필요한 시설을 해주고 학생들도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시설을 해주어야 합니다.

민태진후보: 우선 학교발전기금으로 1천5백억원의 유치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공학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립극장을 정부로부터 불하받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학문의 국제 경쟁력과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기본시설, 실험실습기자재확충, 의료시설의 현대화는 시급합니다.

교수 수를 감안하여 1학과당 1명씩으로 해외연수를 확대하고 국제학술회의 발표등을 통한 연구의 질적 향상과 학문의 세계화를 위하여 학술회의 참가비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각 학과의 자정능력과 경쟁력을 높여 학과장 중심제를 실시하며 학과별 자정능력을 키워나가기로 적극적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자: 내년에는 우리 동국의 역사가 90년이 되고 바야흐로 21세기

오형근후보: 각후보들의 공약을 선별 수용하겠습니다. 만약 낙선이 된다면 제가 내건 공약을 시행하도록 권유하고 좋은 의견이면 계속 조언을 해서 모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 사업관계를 거론하면서 불교적인 배경으로 내세웠는데 누구보다 중단과는 인연을 깊이 맺었기 때문에 불교적인 모순문제라든가 자금출처 문제를 총장에게 맡겨 이용한다면 학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치유후보: 제가 총장이 된다면 역시 첫번은 물론이고 교수, 직원, 학생들 또한 좋은 발전방안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연구실에는 불필요한 시설을 해주고 학생들도 훌륭한 인격자가 되도록 시설을 해주어야 합니다.

민태진후보: 우선 학교발전기금으로 1천5백억원의 유치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공학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립극장을 정부로부터 불하받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학문의 국제 경쟁력과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기본시설, 실험실습기자재확충, 의료시설의 현대화는 시급합니다.

교수 수를 감안하여 1학과당 1명씩으로 해외연수를 확대하고 국제학술회의 발표등을 통한 연구의 질적 향상과 학문의 세계화를 위하여 학술회의 참가비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각 학과의 자정능력과 경쟁력을 높여 학과장 중심제를 실시하며 학과별 자정능력을 키워나가기로 적극적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자: 내년에는 우리 동국의 역사가 90년이 되고 바야흐로 21세기

민: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후보자 모두 합심하여 동국 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합니다.

조되고 있습니다. 직선제폐단에 대한 논란으로 이번선거에 대해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으나 어쨌든 오는 15일에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학교로서는 두번째있는 직선제인 이번 선거의 의미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태진후보: 과거와 달리 민주선거입니다. 이제도는 예교종교에 비해 잘못하면 무리가 갈수도 있다는 것이 염려됩니다. 일단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승복하고 총장에 대한 브레 인역할을 해서 동국발전이 크게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각후보자 정책집에 좋은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가깝게는 멀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비전을 제시한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각후보를 상대로 서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 재 정확보를 우선으로 식수개발과 건설회사등의 수익사업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으로 총장을 선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모든 구성주체들에게 총장에 대한 인식과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로 이 기회가 승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봅니다. 양측면 다시말해 재단과 구성주체간에 요구가 조화를 이루면서 민주적 총장선출과정에서 학교발전에 필요한 의지들을 계획대로 다져진 안을 후보간에 결정적으로 마련하고 대학발전에 필요한 구상과 아이디어가 표출된다면 누가 총장이 되건간에 이런 과정에서 선출된 총장은 많은 사전준비가 되어 학교책임을 맡게 된다고하는 깊은의미가 반영된다고 생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홍치유후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는 더 할 말이 없는데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대학이 공통적으로 걱정하고 사회적 평가와 비평도 받고 했지만 아 물론 15일날에는 선거가 치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동국대학교구원원 모두의 희망사항이 직선제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듭니다.

재단에서 선거분위가 혼탁해지지 않도록 보완해 줄 것을 교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보완되지 못하고 구원원에게도 의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캠퍼스에 약2백60여명, 경주캠퍼스에 2백40명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경주분들이 대이동을 해서 선거를 치루아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료를해야하는 의료원의 교수들 또한 많이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는 정년 7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

조: 우수한 민간기업과 대학의 협력체계 구축및 획기적인 동국발전기금을 확충할 것입니다.

결정과정은 지배하고 다수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선거가 각후보들의 정책제안을 선택하는 과정이 바로 세우야 한다는 민중사적 책무와 담아야 합니다. 셋째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학사행정체계를 과감히 전환하는 혁명적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치유후보: 첫째 산학협동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혁신을 통해 연구중심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하며 끝으로 이 모든 것의 실현을 위한 재확보는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명실상부한 경영총장의 면모를 확립하겠습니다.

조희영후보: 최고의 대학 이미지와 경쟁력제고를 위한 학교발전의 구조개편, 관리혁신 및 국제화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수한 민간기업과 대학의 협력체제구축및 획기적인 동국발전기금을 확충할 것입니다.

김포로 대학운영의 합리적 경영과 구조의 효율적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제후보: 새로운 교육혁신을 위해서 신입생을 별도로 수용, 집단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김: 새로운 교육 혁신을 위해서 신입생을 별도로 수용, 집단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 이번 선거는 21C를 여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개혁의 단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21C에 중추적이거나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 지성의 전당이라는 기로에 와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총의가 결합되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기회가 온다고하는 데서 저는 이선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동국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리더가 나와야만이 잠재적인 힘을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무한한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시화시키고 현대화시키지 못했고 인화단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상대적인

홍: 산학협동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혁신을 통해 연구중심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 이번 선거는 21C를 여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개혁의 단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21C에 중추적이거나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 지성의 전당이라는 기로에 와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총의가 결합되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기회가 온다고하는 데서 저는 이선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동국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리더가 나와야만이 잠재적인 힘을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무한한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시화시키고 현대화시키지 못했고 인화단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상대적인

송: 경영총장으로 서 교육, 재정, 행정에 관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할 것입니다.

를 준비해야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차기총장에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결국 두분만이 선출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재단에 의해 인분이 선택될 것입니다. 만약 최종승자가 안되더라도 차기총장에게 학교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시겠습니까? 또는 그 반대로 총장이 되시면 타후보의 바람직한 공약을 수용할 의향은 어떤지요?

김인제후보: 저를 포함한 후보분 모두 동문으로 학교발전을 가장 우려하는 분들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총장이 된다면 제3캠퍼스 50만평 확보는 꼭 이룰것이고 연구센터를 만들어 세계적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입니다. 다른분들의 좋은 제안도 선택해서 중·장·단기계획을 세워 수용할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2천년대에 우리 학교위상을 올리기 위한 재3캠퍼스 50만평을 구입하지 않으면 어렵다고보고 따라서 이번 총장은 임기중에 어떻게 그것을 실현시켜서 학교 위상을 승화시킬 것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희영후보: 건학이념에 입각해서 불퇴전의 의지로 제가 제시한 공약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많고 어떤 것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취임즉시 중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하는 진지한 회의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공약내용뿐 아니라 후보들의 역량과 협력, 능력을 최대한 발휘, 조화를 이룩서 역사에 남을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박: 최신 학술정보 체계·능률과 효과에 바탕을 둔 행정서비스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이 될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좋겠습니다. 13대총장후보들의 기지가 학교발전의 길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송석구후보: 공약이 대응적일수록 분다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제가 총장이 된다면 각 후보의 공약을 검토하는 공익선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학발전에 이익을 담당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의 뜻과 역량을 발에 대학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진후보: 좋은 공약이 많이 나왔으나 전부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자기철화에 의해 순서를 결정하여 차분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모든분들이 동국발전을 위해 나오신 것으로 압니다. 승부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후 무무상대로 되어 누가 되더라도 위에서 정신적인 브레인 이 되어 다같이 노력하여 하며 경쟁력을 키우기위해 과감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학후보: 저는 우리대학의 여러 불편한 관행을 개혁하고자 출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지에 맞지 않는 정책은 고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지 못한 좋은 공약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 다. 제안한분과 협의하여 가급적 많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후보로 출마하신만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은 시선을 가지신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자: 서울과 경주를 왕복하면서 선거문제로 바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참석해주신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공약이 제대로만 실현된다면 동국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일곱 분 모두가 이처럼 한자리에 모이셨다는 사실자체는 동국구성원들 모두에게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선거운동기간도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해 주시리라 믿고 선거이후에도 모두 합심해서서 동국발전의 결연한 역할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입후보하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우리대학의 어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총장이 되실 한분보다는 나머지 여섯분들의 성원이야말로 21세기를 앞둔 역사적 전환기에서 동국발전의 최대관전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좌담을 마치고합니다.

(기록: 정미=김소영기자)

사회자: 민주보급에서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듯 합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를들면 이사장님의 직선제폐단발언으로 인해 일파만파 전열되고 일부에서 반발이 일어나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직선제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오형근후보: 이번 선거는 예시당초 이뤄질 것인가, 안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 직선제를 안해도 좋은 총장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 재단에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회에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직선제를 이뤄 내지는 의지에 의해 선거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수회 역시 깨끗한 선거를 표방했고 동국대학교의 선거감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7명의 후보가 상태를 비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야말로 페어플레이를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면 합니다.

김인제후보: 경제학자 엘르테브리는 집단의 여론을 일치시키는데 선거제도만큼 좋은제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따른 집단간의 갈등, 불화를 제거한다면 이러한 선거제도만큼 의견일치를 볼수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선거가 이뤄진것은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수 있고 그다음으로 지금까지 후보들이 광범하게 선거활동을 한데에 대해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결과가 좋다면 이번 선거제도도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착이 된다면 동국발전의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

으로 총장을 선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모든 구성주체들에게 총장에 대한 인식과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로 이 기회가 승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봅니다. 양측면 다시말해 재단과 구성주체간에 요구가 조화를 이루면서 민주적 총장선출과정에서 학교발전에 필요한 의지들을 계획대로 다져진 안을 후보간에 결정적으로 마련하고 대학발전에 필요한 구상과 아이디어가 표출된다면 누가 총장이 되건간에 이런 과정에서 선출된 총장은 많은 사전준비가 되어 학교책임을 맡게 된다고하는 깊은의미가 반영된다고 생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홍치유후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는 더 할 말이 없는데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대학이 공통적으로 걱정하고 사회적 평가와 비평도 받고 했지만 아 물론 15일날에는 선거가 치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동국대학교구원원 모두의 희망사항이 직선제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듭니다.

재단에서 선거분위가 혼탁해지지 않도록 보완해 줄 것을 교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보완되지 못하고 구원원에게도 의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캠퍼스에 약2백60여명, 경주캠퍼스에 2백40명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경주분들이 대이동을 해서 선거를 치루아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료를해야하는 의료원의 교수들 또한 많이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는 정년 7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

다. 이번 선거는 21C를 여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개혁의 단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21C에 중추적이거나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 지성의 전당이라는 기로에 와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총의가 결합되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기회가 온다고하는 데서 저는 이선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동국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리더가 나와야만이 잠재적인 힘을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무한한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시화시키고 현대화시키지 못했고 인화단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상대적인

다. 이번 선거는 21C를 여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개혁의 단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21C에 중추적이거나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 지성의 전당이라는 기로에 와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총의가 결합되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기회가 온다고하는 데서 저는 이선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동국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리더가 나와야만이 잠재적인 힘을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무한한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시화시키고 현대화시키지 못했고 인화단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상대적인

다. 이번 선거는 21C를 여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개혁의 단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21C에 중추적이거나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 지성의 전당이라는 기로에 와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총의가 결합되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기회가 온다고하는 데서 저는 이선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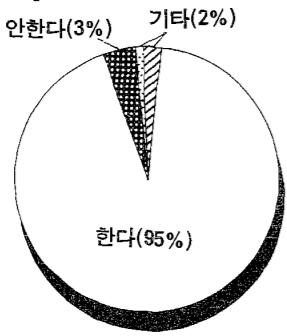
또 동국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리더가 나와야만이 잠재적인 힘을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무한한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시화시키고 현대화시키지 못했고 인화단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상대적인

다. 이번 선거는 21C를 여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와 개혁의 단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대학은 21C에 중추적이거나 시대를 이끌어가는 나 지성의 전당이라는 기로에 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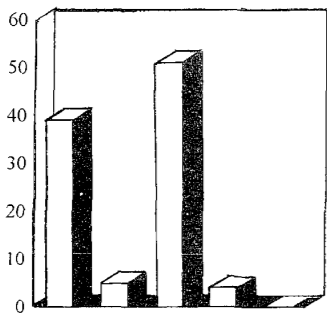
이럴때일수록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총의가 결합되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기회가 온다고하는 데서 저는 이선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동국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리더가 나와야만이 잠재적인 힘을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무한한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시화시키고 현대화시키지 못했고 인화단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상대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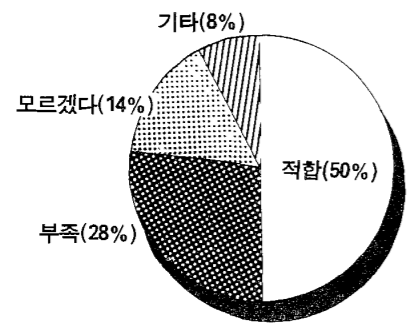
1. 선거참여



2. 대학총장의 위상과 역할



3. 총장후보 평가



여론조사 교수들이 바라본 총장선거

현재 출마한 총장후보자 “적합” 50%
 핵심공약 “학교발전기금 마련” 53%
 추천된 후보자 재단불인정 “반대” 73%

‘세계화’를 부르짖는 요즘 교육시장 개방, 대학입학예정인원 감소, 대학자율화 정책등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립대학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속에 대학의 최고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총장을 다시 맞이하는 것은 대학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일 것이다.

과연 대학 총장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가.

제13대 총장선거를 맞아 서울, 경주 교수들을 대상으로 본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92명의 교수중 52명이 재정적 차원에서 대학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학행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며(39%) 정치권력과 재단으로부터 대학을 보호할 뿐 아니라(5%) 대학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대학 총장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위상을 가지는 총장을 선출하는데 있어 총장후보선출선거에 참여하겠다는(95%)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참여하지 않겠다(3%)는 뜻을 밝힌 교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총장의 자질을 갖춘 합당한 후보가 없어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해 교수 직선이라는 선거의 제도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후보의 내용적 요소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총장후보로 출마한 후보들은 총장후보자로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합당한 후보가 없어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3명)는 의견이 소수이긴 하나 후보자가 적합하다(60%)는 판정은 과반수에 불과했고 부족하다(28%), 모르겠다(14%)는 의견이 일정 비율을 나타내 총장후보 인물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보통이다, 현실 고려시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6%)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현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이제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바로 눈 앞에 있다. 1차, 2차 유세를 거쳐 각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사항들을 피력하며 선거운동에 임하면서 막판 표다지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후보 선출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선거이건간에 공약사항(49%)을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인품(38%) 또한 대학의 어른을 모신다는 것에서 중요하다. 그 밖에 경력(8%)이나 실전 능력, 종합판단력(6%) 등을 꼽는다.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사항중 교수들이 보기에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흡하다고 판단할까. 자신이 후보자라면 무엇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겠느냐는 물음에 학교발전기금마련(53%)이 우위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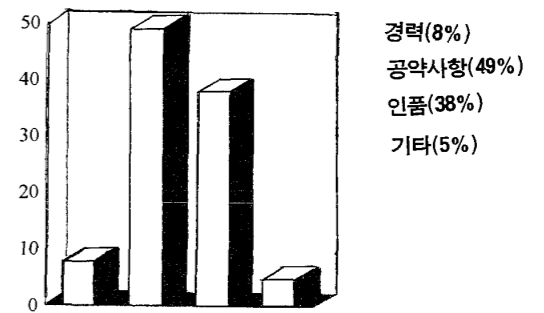
한 현 시점에서의 본교가 처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학문의 상아탑인 대학의 면모를 갖추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34%)과 교직원 처우 개선(1%), 복지시설 확충(3%) 등을 꼽았다. 이밖에 기타(9%)의견으로 학교구조 인사를 전반적인 행정개혁과 대학자율성을 구축하고 교육 질 향상, 학교발전을 위한 종합적방안 등을 거론했다.

총장후보자가 투표에 의해 선출되면 최종 결정은 재단이사회에서 내리게 된다. 만약 차기 총장후보 추천자가 재단에 의해 총장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선거를 치른 교수들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 대다수가 이를 반대한다(73%)고 했다. 어쩔 수 없다(16%), 동조한다(2%), 상관없다(2%) 등 여러의견이 있었고 기타의견(1%)으로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재단에서 제시한 후보에 대한 투표를 해야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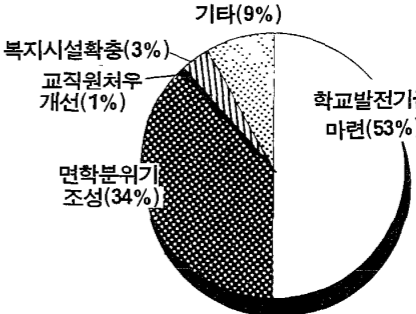
(곽주영 기자)

위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에 응한 서울, 경주 92명의 교수들의 답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한 문항에 두가지 이상 선택한 경우도 함께 포함시켜 분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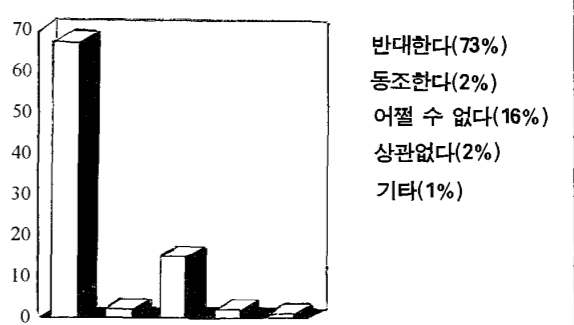
4. 후보선택의 기준



5. 자신이 후보자일 경우 내세울 핵심공약



6. 차기총장후보추천자가 재단에 의해 총장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 제13대 총장후보 추천선거 입후보자 약력

기호1번

◇성명:민 태 진
 ◇생년월일:1937년 4월28일
 ◇학력:본교 화학과 졸업.
 동대학원 화학과 졸업(이화박사).
 ◇경력:이과대학 학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한국화학회 회장, 국제 공화학 전문위원(한국대표), 대한화학회 생화학 분과회 회장, 한국 생화학회 감사, 이사, 성지화술상 수상(1993), 미국 Texas Tech대학교 객원교수, 본교 관리처장, 교무처장, 과학관장, 자연과학연구소 소장 역임.
 ◇주요저서:불교와 과학정신, 광파와 불성, 교수불자 연합회.

기호2번

◇성명:오 형 근
 ◇생년월일:1932년 8월 3일
 ◇학력:본교 불교학과 졸업, 본교 동대학원 졸업(철학박사).
 ◇경력:본교 교수불자회 부회장, 한일불교교류협회의 상임이사, 한국불교학회 이사, 본교 불교대학 학장, 본교 교수회 회장, 한국불교교수회 학술부장, 한국종교학회 상임이사, 일본 경도대학 연구교수 역임.
 ◇주요저서:유식사상연구, 유식학입문, 인도불교의 선사상, 불교와 자연과학, 불교의 물질과 시간론.

기호3번

◇성명:김 인 제
 ◇생년월일:1934년 1월5일
 ◇학력:본교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박사).
 ◇경력:본교 경상대 학장, 고속도로시설관리공단 자문위원, 신라문화재재단 감사, 영석학원 이사, 본교 부설 경제문제연구소 소장, 본교 교무처장, 경제기획원 통계부 전문위원, 한국경제학회 이사, 산업조직학회 부회장, Eastern Washington 대학교 교환교수, 인력개발연구소 연구부장 역임.

기호4번

◇성명:조 회 영
 ◇생년월일:1938년12월29일
 ◇학력:본교 경영학과 졸업, 독일 Bonn대학교 졸업(경제학 박사).
 ◇경력:한국 교수불자연합회 국제 부장, 부회장, 경영대학원장, 한국 아메리안 학술교류 회장, 사단법인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본교 기획조정실장, 한-독 경상학회 회장, 한국 생산성 본부 자문위원, 한국 화이트칼라 생산성학회 부회장 역임.
 ◇주요저서:신경영분석, 금융제도론, 중소기업경영론, 경영학원론, 경제정책 결정론.

기호5번

◇성명:홍 치 유
 ◇생년월일:1938년 3월13일
 ◇학력:본교 물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이화박사).
 ◇경력:반도체연구소 소장, 한국물리학회 정회원, 사업감사, 감사, 이사, 대한전자과학회 정회원, 산업기술포럼 회장, 의료원 기획관리실장, 재료과학연구소 소장, 과학관 관장, 이과대학장 겸 학생처장 역임.
 ◇주요저서:일반물리학, 일반물리학실험법, 대학물리학, 열역학 및 통계역학, 일반물리학실험

기호6번

◇성명:송 석 구
 ◇생년월일:1940년 7월 23일
 ◇학력:본교 철학과 졸업, 동대학원 철학과 졸업(철학박사).
 ◇경력:동국대학교 부총장,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한국공자학회 이사, 한국공자학회 이사, 국제종교철학회 이사, 세계유교학회 이사, 본교 총무처장, 공보실장 역임.
 ◇주요저서:동양철학의 본체론과 인식론, 한국의 유·불 사상, 철학개론, 율곡의 철학사상연구, 바람이 움직이는가 깃발이 움직이는가, 현대 한국사회의 윤리적 쟁점.

기호7번

◇성명:박 준 학
 ◇생년월일:1931년 5월28일
 ◇학력:본교 법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본교 대학원 졸업(정치학 박사).
 ◇경력:본교 영남지역 개발연구소 소장, 한국 공기업학회 부회장(재선),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역임, 영국, 런던 경제 및 정치대학원 초빙교수, 본교 교수회(영주캠퍼스)회장, 한국 공기업학회 이사, 한국 공기업학회 부회장 역임.
 ◇주요저서:복지행정분야 전문인력의 장기수급전략, 논문 합리적 선택행동의 분석이론, 논문 정책결정과 효율.

“공약은 동국인과의 약속입니다!”

기호 1번 민태진 후보

1. 학교발전기금 1천5백억원의 유치기반을 조성한다
2. 교육공간 문제의 해결위해 국립극장을 정부로부터 불하 추진한다
3. 의과대학 서울병원의 설립을 적극 추진한다

기호 2번 오형근 후보

1. 3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다
2. 대학의 국제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3. 생수사업, 제약사업등의 수익사업으로 연간 2백억원의 수입을 확립하겠다

기호 3번 김인제 후보

1. 50만명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 제3캠퍼스를 건립한다
2. 세계적 대단위 연구원을 조직하고자 한다
3. 한방병원은 서울캠퍼스에 다시 설립토록 하겠다

기호 4번 조회영 후보

1. '법불교도·전통국민의 동국발전 구좌' 제도도입 대대적인 가입운동으로 재원확보를 이룩하겠다
2. 의료인력의 해외연수를 늘리고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겠다
3. 공학의 발전을 위한 '공학관' 건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기호 5번 홍치유 후보

1. 산학협동 실현의 구체적 제도 혁신통해 연구중심 대학으로 만들겠다
2. 단과대학 중심으로 학사행정체제를 전환하는 개혁을 실현하겠다
3. 양·한방이 가능한 6백병상 이상의 불교중합병원을 건립하겠다

기호 6번 송석구 후보

1. 범불교적인 전국 순회법회와 동문유지로부터 1천억원 모금한다
2. 봉원사 토지 매각시 3백억원을 본교에 유치하겠다
3. 교직원 처우를 중상위권으로 개선한다

기호 7번 박준학 후보

1. 불교교육의 대중화를 위하여 불교교육원을 설치 운영한다
2. 교수봉급, 연구비 및 기타조성비를 인상한다
3. 영주캠퍼스에 독립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자립성을 높이겠다

동대신문사